

“협회와 회원사가 공동 목표 향해 하나가 되는 희망찬 한 해를 기대”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국내외에서 연달아 일어난 자연재해와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를 사뭇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와 문명은 이런 아픔과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노력에 의해 발전해왔습니다.

광학기기협회 회원사 여러분!

우리나라 광학산업도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변화는 극복의 대상이고 이를 넘어설 때 우리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는 지난해에도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광학렌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각 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인력이 재교육되어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일간 기술협력사업도 한·일 광학산업계, 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광부품에서 광응용제품, 레이저기술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일본기술자에 의한 기술지도, 광학기술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사진영상전시회에 국내업체들이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업계에 큰 호응을 얻었고, 2005년 5월부터는 소형카메라 표준화 사업을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등 국내 광학업체 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학기기협회 회원사 여러분!

2006년은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국내경제도 내수가 살아나는 호전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협회와 회원사



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산업분야별로 선도업체를 선정, TF팀을 구성하여 광학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군겸용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사업화해 나간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광학기술이 앞서 있는 독일을 선정하고 독일의 광산업에 대한 조사사업을 독일광학산

업협회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전시사업도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전시회에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업체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협회지인 ‘광학세계’의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쉽게 접근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협회의 활동은 모든 회원사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때만이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해는 회원사와 협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방향성을 갖고 전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1일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장 이 원 승